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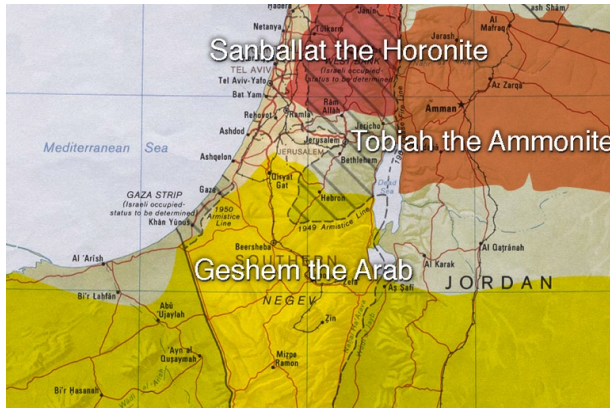
6/6(월) 느헤미야 묵상 4
느헤미야 2:11-20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과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을 허락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허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8절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영성과 지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거주하던 휘방꾼들이 긴장하게 됩니다(10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먼저 호른 사람 산발랏은 바벨론식 이름을 가진 자로서 당시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총독을 말합니다. ‘호른’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본문 10절에서 ‘종이었던’이라는 말을 볼 때 산발랏의 ‘부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암몬이 사마리아의 종이었다는 뜻은 아니고 도비야의 조상이 ‘암몬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 왔을 때 긴장했던 이유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면 사마리아가 이곳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우월성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배경지도 -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아주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11-12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아마도 기도하면서 다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훼파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가 취한 첫번째 행동은 울면서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12절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했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현재의 상황을 치밀하게 진단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만을 동행한 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주변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12절하,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셋째로 느헤미야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에 확신을 갖게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이같은 행동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 새 힘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결코 방심하지 않고 균형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영적 균형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을 보면 주로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 여기지만 그만큼 인간관계와 사회 생활에 있어 지혜가 부족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모습 만큼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열정도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가지 모습은 다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 주님과 관계를 먼저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성실과 지혜 그리고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러시아의 공격이 하루 속히 멈추게 하시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 국가로 피난간 난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루 아침에 선교지를 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고 중보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트럼블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 기관을 위한 기도:** Ghana Maternity Ward Partnership 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